



**전북농협-춘향골농협, 찾아가는 행복버스 운영**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남원시지부(지부장 권오정), 춘향골농협(조합장 임승규)은 28일 춘향골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농업인행복버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사진 촬영과 개인별 검안 후 돋보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장수사진은 액자 제작과정을 거친 후 춘향골농협에서 어르신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춘향골농협은 농업·농촌과 농업 발전에 기여한 원로조합원분들을 초청해 경료잔치를 개최하면서 조합원간 화합을 도모하고 흥겨운 시간을 제공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임승규 조합장은 "행사에 찾아오신 어르신들의 밝은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는 도서·오지 등 복지 접근성이 열악한 농촌지역으로 찾아가 의료진료, 장수사진 촬영, 검안·돋보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업인 행복시대를 선도하는 농업인 실업사업이다. /남원=김기우 기자



**익산시, 전북 장애인체육대회 종합 3위 달성**

익산시가 2022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남원시 일원에서 개최된 2022년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익산시는 총 15개 종목 119명의 선수가 참여해 골볼 등 여러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지난 전북도민체전 3위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종합 3위를 달성했다.

시는 명품 장애인 체육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총 182억원이 투입된 본대비(장애인)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는 익산종합운동장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올여 말 완공 예정이다.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어울림 공간으로 장애인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1·2층에는 수중운동실,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고 3층에는 펜싱경기장이 설치된다.

정현용 시장은 "이번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익산시 선수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순창자본센터, 자봉협의체 구성... 14개 단체 참여**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소장 김삼순)는 순창군의 14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순창군자원봉사협의체를 구성하고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순창군자원봉사협의체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감염병 등 사회문제 발생 시 단체들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순창군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히 확보해 자원봉사 및 수습복구 등의 지원활동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유형 및 재난 대응 단계별 자원봉사 활동 세부내용을 공유하고, 지역의 자원봉사 현안 등 앞으로 협의체가 추진해 나갈 부분들을 논의했다.

조태봉 행정과장은 "이번 순창군자원봉사협의체 구성이 재난 현장에서 각각 단계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구성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금마저의 향연, '어라하! 금마'**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마을축제 오늘까지 열려

익산시는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특색있는 마을 축제를 개최한다.

시는 28일부터 이틀간 금마면 선화공원 일원에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마을 축제 '어라하! 금마'를 열고 있다.

이번 축제는 금마고도지역 주민협의체가 직접 기획·홍보까지 참여했으며 차이를 품은 금마저의 향연, 어라하! 금마 라는 슬로건으로 백제 무왕 시기 왕도(금마저)와 조선시대 익산군 중심지인 익산역사의 상징적 공간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축제는 금마풍물단의 합창 공연을 시작으로 문화공연, 제기차기, 팔씨름 대회, 금마키요열전 등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그중 퓨전국악단 힘의 공연은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플리마켓은 지역 농산물 도예, 꽃차, 각종 핸드메이드 공예품 등 총 22개 팀이 참여 판매 부스를 운영하여 축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마을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금마면 삼합시 짓기 백제 스탬프 부어는 금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주민협의체 손관길 회장은 "어라하! 금마의 어라하는 백제시대 왕을 부르는 호칭으로써 지금의 '어라하'는 주민이다"며 "새롭게 금마를 만들어가는 주민의 노력과 흥겨움이 마을축제를 기획한 주민도 축제를 찾은 많은 시민 모두도 '어라하'가 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마고도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관광객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금마면의 지역 특색있는 마을 축제를 개최해 도시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비전대, 김광수 정무특보 초청특강**

전주비전대학교는 28일 비전관 대강당에서 전북도청 김광수 정무특보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서 김광수 정무특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직업들은 광범위한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 능력을 요구한다"며 "적성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무엇보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내를 수반한 적극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동적인 경력을 개발하는 기술로 학습 기술, 기본에 충실 사회/커뮤니케이션 기술, 긍정적인 마인드, 사고와 행동의 세계화 등의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솔직한 일자리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특강에 기계과와 지적토목학과, 간호학과 및 자동차과 등 재학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은성 기자



**장수소방서, 학교로 찾아가는 119안전체험교육 운영**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교육부와 협으로 안전체험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119안전체험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학교로 찾아가는 119안전체험교육'은 환경·지리적 여건으로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하고 체험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강사 및 아동안전체험차량 등 소방관서 안전체험장비를 활용하여 체험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체험별 소규모 그룹 단위로 분산·순환식 체험교육 형태로 운영되며 주요 체험 내용은 △진진 대피 체험 △소화기 체험 △심폐소생술 실습 △미래소방관 체험 △탈출체험 △열·연기 비상탈출 등이 있다.

소재실 장수소방서장은 "이번 교육이 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들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소방서, 겨울철 위험물시설 안전대책 추진**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난방기기 사용이 본격화 될 것에 대비해,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를 대상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란 보일러·냉온수기·급탕설비·소각로 등으로 위험물(인화점이 38°C 이상인 제류 위험물에 한함)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함)이다.

이번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물 시설기준 및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 소방검사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요령 등 안전컨설팅 △사용종지 신고 대상 용도폐지 지도 △사용종지 예정 대상 사용종지 안내 등의 행정지도가 있다.

소재실 장수소방서장은 "본격적으로 난방기기 사용을 하기 전, 사고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원산소방서,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당부**

전주원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28일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경운기 등 각종 농기계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기계 사용 시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농기계 교통사고가 150건 발생하여 사망 32명과 부상 15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80%는 60대 이상의 노인이었다. 또한 농기계 교통사고 원인의 73.0%는 휴대전화 사용, 졸음운전, 운전미숙 등으로 나타났다.

전주원산소방서와 임실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가을철을 맞아 안전사고 위험지역 순찰, 농기계 안전점검, 사고예방 홍보 등을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한편,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 전·후 정비 점검 철저 △농기계 조작요령 숙지 △음주 후 농기계 운전 금지 △추락·전도 등 사고위험이 높은 농로·내리막길·모퉁이에서 서행 △야간 주행시 조명등 확인 △교량폭주 준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김장수 전주원산소방서장은 "가을철 농기계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사용 전 점검·정비 및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10월 다양한 행사 펼쳐**

남원시 산림과는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전시관과 캠핑장을 찾아오는 남원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광광체험장, 내셔널지오그래픽 기획전시, 가을밤 작은 음악회 3가지의 체험·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광광체험장에서는 유료 체험인 △자비볼 레이싱 △다래쭈통 굴리기와 무료 체험인 △다트 축구 △에어농구 △스카이 풍동 체험행사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휴관일을 제외하고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야외운동장에서 체험할 수 있다.

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는 지난 6월 국립과천과학관이 내셔널지오그래픽과 공동 기획한 '나라저가는 곤충 특별전'이 진행되며, 해당 전시에 사용되는 모든 공간은 지속 가능한 소재인 종이로 제작되어 친환경적인 전시로 구성되어, 이번 전시를 통해 인류 사회에 필요한 존재인 곤충의 중요성과 우리가 그들을 지켜야 할 이유를 함께 볼 수 있다. /남원=김기우 기자



또한 국민여가 캠핑장에서는 가을밤 캠핑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고자 10월 2일, 9일, 28일에 통기타동아리 '노을'의 낭만 있는 기타공연이 개최되며, 가을밤 작은 음악회는 저녁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주비전대, 2022 LINC 3.0사업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28일 본교 학생종합선교관 진리홀에서 2022년 LINC 3.0사업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및 2022 비전엑스포 졸업작품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10월 말 개최 예정인 전주비전대 VISION EXPO 2022 에 전시될 작품에 대한 심사와 LINC 3.0 사업으로 지원한 기업연계 캡스톤디자인 작품들의 경진대회와 함께 이뤄졌다.

전자와 등 13개 학과, 375명의 학생이 32개 산업체와 협력해 46개의 작품을 출품,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LINC 3.0 사업단 최승훈 단장은 "캡스톤디자인 과목은 정규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창의역량을 향상시키고자 PBL 등 다양한 수업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을 작품을 통해 알 수 있었고, 이런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를 위한 지원에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화협약단 이근산 단장은 "전주비전대의 졸업작품전인 VISION EXPO는 매년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고, 올해도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미리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김제시청 에이스야구단, 통합우승 쾌거**

김제시청 에이스야구단(단장 경제복지국장 김태한)이 2022년 김제 사회야구대회 토요일리그 최종경기에서 승리하며 통합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2022년 2월부터 지광산야구장 및 스피아야구장에서 펼쳐진 주말 리그에는 김제시청, 김제경찰서, 전북도청 등 일반 직장인 팀 등 총 10개팀이 참가하여 그 동안 연마한 기량을 발휘하며 우승을 위한 자웅을 겨뤘다.

시청에이스 팀은 시즌 기간 동안 10개팀을 상대 15승3패의 압도적인 실력으로 최종 순위결정전 결승전에 안착했으며, 펜티스를 누르고 결승에 올라온 타이펀팀과 통합 우승 타이틀을 놓고 격돌했다.

선발투수 유진권(백골제이리양자업소)이 50이닝 7피안타 5실점 구원투수 강성정(상하수도과)이 201년 1실점으로 역투를 펼쳤으며 이날 게임은 정규이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해 승부차기까지 가는 초유의사태가 발생하였고, 승부차기에 서 김길수(새민금전리과)의 결승타점으로 7:6 끝까지 극적인 승리를 견인하고 김제시청 에이스팀을 통합우승으로 이끌었다.

해마다 정상급 실력으로 꾸준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에이스팀은 11월에 있을 김제시장기 대회도 우승을 다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창군, 인·허가 부서간 알림다짐 토론회 개최**

전북 고창군이 28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발행위인·허가 민원담당 공무원, 종합민원실 전직원 대상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인·허가 민원인'이 되어 보면서 느낀 제출서류 부족, 업무 때넘기기 등의 사례를 되짚으며 올바른 해결방안을 고민했다.

앞서 심덕섭 고창군수는 "민선 8기 군민행복은 신속하고, 올바른 민원처리에 있다"며 공직자들의 섬김행정을 강조했다.

배기영 종합민원실장은 "토론회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을 실제 업무에 반영해 군민이 만족할 때까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직원들이 서로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